

서정시인으로서의 하이네

— 초기 작품의 낭만성을 중심으로 —

한 재 홍

— 목 차 —

- I 서 론 II 낭만적 요소와 초기작품
III 하이네와 독일 낭만주의 IV 결 론

Han Jae-hong : Heinrich Heine als lyrischer Dichter:

—über die romantische Element in den frühen Werken—

Zusammenfassung

Hier will ich das romantische Element in den frühen Werken Heines betrachten.

Mit dem ersten Federzug beginnt bei Heine die lyrische Produktion.

Mit Heinrich Heine ist die alte lyrische Schule der Deutschen geschlossen, während zugleich die neue Schule, die moderne deutsche Lyrik, von Heine eröffnet wird. Man nennt ihn den ungezogenen Liebling der Grazien, den letzten Romantiker der deutschen Dichtung.

Er erzählt in seinen "Memorien" so manches von seinen Beziehungen zu dem "roten Sephchen", welches letzteres die Tochter der Scharfrichters von Düsseldorf war.

Die Einwirkung dieser Liebesbeziehungen auf die Jugendpoesie Heines ist unverkennbar. Hat er aber auch bereits in blutjungen Jahren alle Süßigkeit und Bitternisse der Liebe kennen gelernt, so begannen doch die eigentliche Tragödie der unerwiderten unglücklichen Liebe, als sich sein Liebesroman mit seiner Kusine Amalie (1800—38) der dritten Tochter seines reichen Oheims, des Bankers Salomon Heine.

Zu allem Widrigen im Dasein des jungen Dichters gefellte sich noch die bereits erwähnte unglückliche Liebe zu seiner Kusine Amalie.

Die ersten veröffentlichten Gedichte aus dem Jahre 1817 zeigen den jugendlichen Schmerz, der sich ganz und gar romantischer Töne bedient.

I 서론

Heine의 정치성에 대해서는 이미 출판된 제대교수 연구논문집(제1집)에서 그의 일면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서정시인으로서의 그의 일단을 연구 발표 하려한다.

낭만적인 세계적 시인이라 하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영국의 시인 Byron(1788~1824)과 독일의 시인 Heine를 드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 그 세계적인 시인 Heine의 인간상을 그의 초기작품 「Buch der Lieder」를 중심으로 규명하며 서정시인으로서의 발전상을 밝혀보려 함과 동시에 그의 「Buch der Lieder」의 작품이 여하한 과정에서 묘기한 방법으로 내용을 발전시켜 가는 시인 자신이 정서적인 지각(知覺)과 표현방법을 고찰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독일에서 Heine의 시로 작곡된 것 만도 그 숫자가 5천 이상을 헤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볼지라도 그의 시인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고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세계적인 낭만시인 Heine를 그의 초기작품속에서 그의 인간성과 생활을 살피며 예술가(藝術家)로서의 Heine의 본질을 파악하려 한다.

이 소론에서는 낭만적 요소와 초기의 작품인 Junge Leiden(1817~1821)과 Die Heimkehr(1823~1824)의 몇몇 시를 골라 살펴 보기로 하였다.

그의 서정시는 사랑의 기록이 아니라 실연과 괴로움과 슬픔을 호소하는 진실한 기록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이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동정하는 마음속에서 그의 위로를 풀려고 스스로 펜을 든 셈이다.

Heine의 예민한 감수성(感受性)과 시인적인 소질로서 그의 작품속에서 예술관의 형성과정과 또 독일의 문예부흥이라고 불리우는 독일 낭만주의를 Heine자신은 어떻게 직관하여 왔는가 매우 흥미 있는 과제라고 보며 아울러 독일 낭만주의 사상의 특질을 분석하며 문학사상(文學史上)의 그 위치를 밝히려고 하는 바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의 체계와 질서를 그의 관념과 이상과 또 그의 성격을 합리화 하는데 성공을 보았다고 보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려 한다.

이리하여 그의 작품의 생성, 발전, 완성의 과정을 살펴보는데 이 소론의 의의가 있다.

II 낭만적 요소와 초기작품

1854년 3월에 발표한 Heine의 Geständnisse(Geschrieben im Winter 1853~1854)의 문장에서

낭만주의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Ein geistreicher Franzose nannte mich einst einen Romantique défroqué,
Ich hege eine Schwäche für alles, was Geist ist, und so boshaft die Benennung
war, hat sie mich dennoch höchlich ergötzt.

Sie ist treffend. Trotz meiner exterminatorischen Feldzüge gegen die Romantik,
blieb ich doch selbst immer ein Romantiker, und ich war es in einem höheren Grade,
als ich selbst ahnte. Nachdem ich dem Sinne für romantische Poesie in Deutschland
die tödlichsten Schläge beigebracht, beschlich mich selbst wieder eine unendliche

Sehnsucht nach der blauen Blume im Traumlande der Romantik, und ich ergriff die be-
zauberte Laute und sang ein Lied, worin ich mich allen holdseligen Übertreibungen,
aller mondscheintrunkenheit, allem blühenden Nachtigallen Wahnsinn der einst so
geliebten Weise hingab. Ich weiß, es war das "letzte freie Waldlied der Romantik"
und ich bin ihr letzter Dichter; mit mir ist die alte lyrische Schule der Deutschen
geschlossen, während zugleich die neue Schule, die moderne deutsche Lyrik, von
mir eröffnet ward.

(Sämtliche Werke zehnter Band, Deutschland P. 3)

이와같이 주장한 다음 나와함께 독일의 옛 서정시(抒情詩)는 나에게 의하여 개화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그는 낭만주의를 공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낭만주의자였다는 것이다. 독일의 어느 학자는 문학자나 사상가를 연구하려면 우선 그 문학자나 사상가의 소질과 교양과 체험이 근본 문제점이라고 말하듯 Heine의 예민한 신경과 정열적인 통찰력은 작품의욕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다정다감한 소년의 감정의 도취와 절망적인 요소들 갖게 되며 내적 욕망을 성장하게 되어 여기에 낭만적인 성격을 풍기게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교양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은 Bonn 대학재학시절(1819~20) 당시 Bonn 대학 교수이며 낭만파의 지도자인 Wilhelm, Schlegel(1767~1845)의 강의에 큰 영향을 받고 「낭만주의」를 발표한 바 있으며 따라서 당시의 Heine는 낭만주의에 입각하여 문학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또 체험으로 보는 Heine는 물론 소년시절의 유대인계의 민족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비간접적인 취급을 당하여 온 허약한 의지가 자유로운 해방의 정신과 약자에 대한 동정심은 강자에 대한 반감과 적의심(敵意心)을 품게되며 부드러운 것에 대한 동경과 사랑은 Heine의 전생애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며 Heine의 초기작품인 「Buch der Lieder」를 중심으로 서정시인으로서의 Heine를 규명하려 하는 것이다.

Heine는 1816년 시를 만들기 시작하여 이미 발표된 그의 시집 (Gedichte 1821)을 1827년에는 그의 제일 시집으로서 햇빛을 보게된 「Buch der Lieder」를 발간함으로써 세계적인 시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797년 12월 Rhein 강변의 Düsseldorf의 유대인계 상가에서 태어난 Heinrich

Heine(1797~1856)는 1816년 가을 Hamburg의 대은행가인 그의 숙부 Solomon Heine(1767~1844)의 원조를 받고 실업가를 희망(부모의 권고로)하여 Hamburg의 숙부덕에 숙소를 정하였음은 Heine의 나이 22세의 젊음의 순정한 정열과 격동하는 연정은 당시 여성적인 매력을 한 몸 에 담복 지닌 성숙하고도 순결한 숙부의 딸인 종매(從妹) Amalie Heine(1800~1838)에게 불꽃 처럼 덩벼드는 격정(激情)은 도저히 억제할 길이 없다. 그의 "Memorien"에서 그의 짝사랑의 상대자인 Amalie에 대한 인상깊은 부분은 시인 Hiene의 친동생인 Maximilian Heine에 의하여 거이 말소되고 있으나 남성적이고 엄격한 숙부와 그의 딸들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그의 「외상」의 구절속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Von den Kindern meiner Großmutter haben, soviel ich weiß, nur zwei ihre außerordentliche Schönheit geerbt, nämlich mein Vater und mein Oheim Salomon Heine, der verstrbene Chef des hamburgischen Bankhauses dieses Namens.

Die Schönheit meines Vaters hatte etwas Überweiches, Charakterloses, fast weibliches. Sein Bruder besaß vielmehr eine männliche Schönheit und er war überhaupt ein Mann, dessen Charakterstärke sich auch in seinen edelgemessenen, regelmäßigen Zügen imposant, ja manchmal sogar verblüffend nfebarste.

Seine Kinder waren alle, ohne Ausnahme, zur endzückendsten Schönheit emporgelblüht, doch der Tod raffte sie dahin in ihrer Blüte und von diesem schönen Menschenblumenstrauß leben jetzt nur zwei, der jetzige Chef des Bankhauses und seine Schwester, eine seltene Erscheinung mit.....

Ich hatte alle diese Kinder so lieb und ich liebte auch ihre Mutter,...

(Heines sämtliche Werke-neunter Band. memorien P. 300)

위 구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숙부의 성격이 남성적이면서 너무나 엄격한 그의 고집적인 성격은 때로는 이 업적이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에 소년 Heine의 순직한 내성적인 성격으로 와서 Amalie를 그토록 사랑과 사모를 면치 못하면서도 그의 뜻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Heine의 내부에서 무르익어 가는 연정(戀情)은 현실세계에서는 도저히 실현할 길이 없는 사랑의 괴로움을 보다 높은 이상의 세계에서 찾아보려는 영원한 사랑의 세계를 지향하며 사랑의 무한성과 불멸성을 나타내려는데서 그의 낭만적인 부르짖음이 탄생 하였다고 본다.

이토록 소녀 Amalie를 사랑하면서도 한번도 조롱하여본 적도 없거니와 지능적인 육정 사실도 없었다는 점은 당시의 Heine의 내성적인 성격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그의 소질에서 오는 숭고(崇高)한 천국의 세계를 내다보는 몽상과 영원한 사랑만을 도취하려는 Heine는 곧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Heine는 자기의 소년 시절의 사랑의 괴로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ufrichtig gesagt : welche schreckliche Krankheit ist die Frauenliebe ! Da hilft keine Innokulation, wie wir leider gesehen. Sehr geschickte und erfahrene Ärzte raten zu Ortsveränderung und meinen, mit der Entfernung von der Zauberin zerreiße auch der Zauber.

Das Prinzip der Homöopathie, wo das Weib uns heilet vo dem Weibe, ist vielleicht das probateste.

So viel wirst du gemerkt haben, teurer Leser, daß die Inokulation der liebe, welche meine Mutter in meiner Kindheit versuchte, keinen günstigen Erfolg hatte. Es stand geschrieben, daß ich von dem großen Übel, den Pocken des Herzens, stärker als andere Sterbliche heimgesucht werden sollte, und mein Herz trägt die schlecht vernarbten Spuren in so reichlicher Fülle, daß es aussieht wie die Eipsmiske des Mirabeau oder wie die Fassade des Palais Mazarin nach den glorreichen Juliustagen oder gar wie die Reputation der größten tragischen Künstlerin.

Gibt es aber gar kein Heilmittel gegen das fatale Gebreite ?

(memorien P. 324 : HeinesWerke)

그의 추억이라고도 볼 수 있는 “Memorien” 에서 역설하는 바와 같이 「여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일까」하고 자문하는 Heine의 심정은 벌써 사랑의 괴로움으로부터 도피할 길이 없는 난치병(難治病)에서 허덕이며 「이러한 병자에게는 명의(名醫)나 명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하며 여기에 자기의 고민과 슬픔을 호소한다.

Goethe(1749~1832)의 작품은 그의 생애의 기쁨과 슬픔의 축적(蓄積)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Heine의 작품은 그의 생애의 슬픔과 괴로움의 체험이라 하겠다.

그의 작품의 묘사(描寫)는 Heine 자신의 생활과 작품속에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자전적 체험요소(體驗要素)를 가진 고백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Heine의 생활및 체험을 모르코서는 Heine의 작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되겠다.

Heine는 또 소년시절을 회상하는 「Memorien」을 보면 Heine가 16세의 소년시절에 어느전설적인 사형집행인(死刑執行人)의 딸인 Josepha의 이성애에 대한 어린시절의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둔 것을 보면

Die Stimme der Josepha, order der raten “Sefchen”, wie man die schöne Nichte der Göcherin nannte, war nicht besonders wohl lautend und ihr Sprachorgan war manchmal bis zur Klanglosigkeit verschleiert ; doch plötzlich, wenn die Leidenschaft eintrat, brach der metall reichste Ton hervor, der mich ganz besonders durch den Umstandgriff, dass die Stimme der Josepha mit der meinigen eine so große Ähnlichkeit hatte.....

(memorien P. 318)

라고 정열적인 Josepha의 감동적 인상을 말하는 Heine는 자기의 최초의 시인 “Buch der Lieder”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Traumbilder”의 영향에 대하여 역시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Sie wußte viele alte Volkslieder und hat vielleicht bei mir den Sinn für diese Gattung geweckt, wie sie gewiß den größten Einfluß auf den erwachenden Poeten übte, so daß meine ersten Gedichte der “Traumbilder” die ich bold darauf schrieb, ein düsteres und grausames Kolorit haben, wie das Verhältnis, das damals seine blutrünstigen Schatten in mein junges Leben und Denken warf.

(동 P. 318)

이상과 같이 그의 청년시대의 생활과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것을 설명한다음 Josepha에 대한 정열적인 사랑에 대하여서는

「Willst du küssen das blake Schuort, Das der liebe Gott beschert?」

라고 부르는 Josepha의 노래에 대하여 Heine는 같은 용어로 —나는 반짝이는 대검(刀)에는 키스하지 않는다. 다만 사랑하는 Josepha에게 키스 할 따름이다— 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und da sie sich aus Furcht, mich mit dem fataleu Schwert zu verleßen, nicht zur Gegenwehr seßen konnte, mußte sie es geschen lassen, daß ich mit großer Herzhaftigkeit die feinen Hüften umschlang und die trußigen Lippen küßte. Ja, troß dem Richtschwert, womit schon hundert arme Schelme geköpft worden, und troß der Infamia, womit jede Berührung des unehrlichen Gechlechtes jeden behaftet, küßte ich die schöne Scharfrichterstochter.

(memorien P. 323)

이와같이 Heine의 내적인 감정이 담뿍 토로하며 자신도 모르게 스며드는 정열적인 도취(陶醉)가 소년 Heine의 가슴을 지배하여 연정(戀情)이 깃들기 시작한 순정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꿈의 세계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공상적이고 낭만적인 묘사 방법으로 소리높이 부르짖는 초기작품 「Junge Leiden」의 Traumbilder의 노래를 감상하며 이 시절의 연정을 더듬어 보는 좋은 재료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다음 시구를 적어본다. 역시 Josepha에 대한 격동하는 감정을 과거의 사모와 함께 흘러가는 유창한 솜씨로 적어 놓은 것이다.

Mir träumte einst von wildem Liebesglühn,
Von hübscen Locken, Myrten und Resede,
Von süßen Lippen und von bitterer Rede
Von düstrer Lieder düstern Melodien.

Verblichen und verweht sind längst die Träume,
Verweht ist gar mein liebstes Traumgebild !
Geblieden ist mir nur, was glutenwild,
Ich einst gegossen hab' in weiche Reime.

Du bleibst, verwaistes Lied ! Verweh jetzt auch,
Und such das Traumbild, das mir längst entschwunden,
Und grüß es mir, wenn du es aufgefunden,
Dem luft'gen Schatten send' ich luft'gen Hauch.

Im süßen Traum, bei stiller Nacht
Da kam zu mir mit Zaubermacht,
Mit Zaubermacht, die Liebste mein,
Sie kam zu mir ins Kämmerlein.

Ich schau' sie an, das holde Bild !
Ich schau' sie an , sie lächelt mild,
Uud lächelt, bis das Herz mir schwoll,
Uud stürmisch kühn das Wort entquoll :
"Nimm hin, nimm alles, was ich hab',
Mein Liebstes tret' ich gern dir ab,
Dürft' ich dafür dein Buhle sein,
Von Mitternacht bis Hahnenschrein."
Da staunt mich an gar seltsamlich,
So lieb, so weh und inniglich,
Und sprach zu mir die schöne Maid :
"O, gib mir deine Seligkeit !"

Da tanzt im Kreise wunderbar
Um mich herum die schwarze Schar,
Und drängt heran, erfaßt mich bald,
Und gellend Hohngelächter schollt.

Und immer enger wird der Kreis,
Und immer summt die Schauerweis :
"Du gabest hin die Seligkeit,
Gehörst uns nun in Ewigkeit !"

위의 시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 구절에서는 평탄한 음조로 꿈속에서 자기의 연정을 묘사

하기 시작하여 연정의 즐거움을 노래하여 춤을 추는 데 말걸에 이르는 동안 점점 음조가 날카롭고 심각하게 실연의 괴로움을 벗어나갈 길 없는 궁지에 몰아 넣는 묘사 방법의 솜씨는 Heine가 아니고 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Josepha에 대한 정열적인 사랑은 결국 자기의 성년기의 위대한 비극의 서곡(序曲)에 지나지 않다고 그의 「추억」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함은 Heine의 연정의 꽃씨가 여기에서 시초가 된 것을 절실히 말하여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Ich will meine Liebe für Josepha nicht näher beschreiben. So viel aber will ich gestehen, daß sie doch nur ein Präludium war, welches den großen Tragödien meiner reiferen Periode voranging. So schwärmt Romeo erst für Rosalinde, ehe er seine Julia sieht.

In der Liebe gibt es ebenfalls, wie in der römisch= katholischen Religion, ein provisorisches Fegfeuer, in welchem man sich erst an das Gebratenwerden gewöhnen soll, ehe man in die wirkliche ewige Hölle gerät. (memorien P. 323)

이리하여 출발한 Heine는 연애시인(戀愛詩人)으로서 근대 서정시(抒情詩)를 개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세계를 도피하며 공상의 세계에서 미의 꿈을 실현시켜 즐기려는 판념은 낭만파에 직결되는 이념이라 보는 것이다. 또 그는 현실의 세계에는 아름다움을 찾아 볼 수 없고 악의 순환에 불과하는 현실 세계를 떠나서 아름다운 꿈의 나라 즉 공상의 세계로 피신하여 영원한 행복과 만족의 실현을 꿈꾸려는 데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Heine의 명작 「Buch der Lieder」의 전면을 장식하는 Traumbilder의 시구(詩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가 자신 현실의 세계에서 실현을 이루지 못하였던 사실을 꿈의 나라에서 부르는 소재(素材)나 형식은 완전히 낭만주의적인 것이라 본다.

「Junge Leiden」의 제일 시군(詩群) Traumbilder 중(3)과 (4)는 1821년에 작시한 것인 데 여기에서도 역시 시인 Heine의 연인인 종매 Amalie가 그의 사랑을 무시하며 1820년에는 거부인 Johann Friedländer씨와의 약혼이 성립과 동시에 다음해 8월에는 정식으로 결혼을 맺은 것을 보며 Heine는 그 괴로움으로 사경(死境)에서 허덕이는 슬픔이 장식된 노래를 부르짖는 실연가(失戀歌)들로 엮어진 비련가들인데 당시의 Heine의 심적인 괴로움을 여지 없이 구현된 구절을 플라 감상하여 보면,

(3)

Im nächtigen Traum hab' ich mich selbst geschaut,
In schwarzem Galafrack und seidner Weste,
Manschetten an der Hand, als ging's zum Feste,

Und vor mir stand mein Liebchen, süß und traut.

Ich beugte mich und sagte : "Sind Sie Braut ?"
Fi! ei! so gratulier' ich, meine Beste!
Doch fast die Kehle mir zusammenpreßte
Der langgezogne, vornehm kalte Laut

Und bittere Tränen plötzlich sich ergossen
Aus Liebchens Augen, und in Tränenwogen
Ist mir das holde Bildnis fast zerflossen.

O süße Augen, fromme Liebessterne,
Obschon ihr mir im Wachen oft gelogen,
Und auch im Traum, glaub' ich euch dennoch gerne!

결혼하는 Amalie에 대한 비련의 노래인데 이토록 실연(失戀)의 괴로움을 생생하게 묘사한 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좀처럼 찾아 볼 수가 없다.

비극의 사랑과 실연의 노래로서 피를 토하는 것이다.

Amalie에 대한 사랑의 체험은

「Buch der Lieder」의 Junge Leiden(1816~1821)과 Lyrisches Intermezzo(1822~1823)의 작품으로 개화되고 있으며 그의 시인으로서의 두뇌를 충분히 온 세상에 떨쳤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순정의 전형적(典型的)인 시가는 실연과 절망속에서 여러가지 형식으로 작품화 하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Heine의 연애관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관능적(管能的)이고 유희적(遊戲的)인 사랑이 아니라 내성적이고 정신적인 짝 사랑에 불과하였다는 점은 시인 Goethe와는 다르다. 연애의 감도(感度)를 누구보다 높이 찬미하면서도 실생활에 있어서는 사랑 하는 처녀를 유혹(誘惑)한 적도 없었고 유부녀와의 관계를 맺인일도 없었다는 것이다.

정열적인 사랑의 노래를 온 세상에 공개 하면서도 진실한 연문(戀文)이 없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실증(實證)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Heine의 성격이 매우 엄격 하였다는 약점을 고찰할 수가 있다.

이리하여 제1편의 시집이 출판된 약 1년후인 1823년 4월에는 제2권의 시집인 「Lyrisches Intermezzo」가 발표되었다. 이 시편은 65편의 시에 의한 연시(連詩)로서 여기에서는 Heine는 더 한층 자기의 청춘이 위대한 사랑의 노래를 시적인 자유성과 시적인 진실성으로 매우 달력된 형식으로 구비하며 노래 부른다.

이 시편에서도 물론 이미 결혼한 Amalie에 대한 실연의 괴로움을 부르고 있으나 고독한 사랑

과 사랑에의 동경을 과거의 사랑속에서 상기하며 분노하는 사랑의 추억을 간절하게 부르는 숨
씨가 보인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여인상은 봉건적이고 귀족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며 순결하고 고귀한 사랑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기주의(利己主義)적인 사회 풍기를 묘사하고
있으며 서정시의 민주화에의 전환이 되었다는 데 특색이 있다.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Amalie에 대한 사모는 소설의 빛을 비추고 있을 무렵 역시 숙부
Salomon의 막내 딸인 Therese Heine(1808~80)에게 옮겨지는 것이다

Heine 자신이 말하듯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서운 질병이며 이러한 질병의 치료법은 애인
을 교체하는 것만이 효과적이라고 다음과 같이 그의 「회상」에서 말하고 있다.

Ebenso töricht ist es, wenn man einem Liebeskranken anrät, den Anblick seiner
Schönen zu fliehen und sich in der Einsamkeit an der Brust der Natur Genesung
zu suchen. Ach, an dieser grünen Brust wird er nur Langeweile finden, und es wär
ratsamer, daß er, wenn nicht alle seine Energie erloschen, an ganz andern und sehr
weißen Brüsten wo nicht Ruhe, sondern heilsame Unruhe suchte, denn das wirk-
samste Gegengift gegen die Weiber sind die Weiber; freilich hieße das, den Satan
durch Beelzebub bannen, und dann ist in solchem Falle die Medizin oft noch ver-
derblicher als die Krankheit. Aber es ist immer eine Chance und in **trostlosen**
Liebeszuständen ist der Wechsel der Inamorata gewiß das ratsamste, und mein
Vater dürfte auch hier mit Recht sagen: jetzt muß man ein neues Fäßchen anste-
chen.

(memorien P. 324)

이렇게 주장하는 Heine는 실연의 불치병에 대한 명약을 발견하리라고 무척 고민하는 상태를 설명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1823년 여름 Hiene가 Hamburg의 숙부덕을 재방문 하였을 때에 Amalie의 동생인 Therese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고 그동안 성숙한 여성미로 성장하여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무한한 기쁨과
사랑의 연정은 온통 피를 뿜기며 Heine 자신 어쩔 줄을 몰랐다.

소녀 Therese에 대한 새로운 눈초리는 드디어 능숙한 시인 Heine의 다감한 시정(詩情)에 의
해 소박한 말씨로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어려서 부터의 시혼(詩魂)을 충분히 발휘하기 시작
하여 온 세상에 그 빛을 보게 된다.

소녀 Therese는 어느 정도 시인 Heine에게 호이를 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있었으나 역
시 봉건적이고 성격이 엄격한 숙부에 의하여 1828년에 Adolf Halle와의 약혼식을 알게 되자 또
하나의 실연의 상처를 입게 된다.

Heine는 1823년 부터 약 1년간 작시한 것을 「Die Heimkehr」에 발표하고 있는 88편의 시로

편성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Amalie에 대한 실연의 괴로움은 Therese의 희망적인 사랑으로 교체하게 되며 말로에는 Therese의 결혼과 동시에 사경에 빠지는 정신적인 상황은 어떠 했던가? 매우 흥미있는 시군이라 생각되며 우선 1823년 여름 Hamburg의 숙부댁에서 어린 소녀 Therese를 보았을 때의 인상을 표현하는 다음의 시절(詩節)은 당시의 Amalie에 대한 실연의 절망속에서 허덕이던 가련한 Heine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의 불꽃이 어쩔 수 없는 시정(詩情)으로 다음과 같이 노래 부른다.

(6)

Als ich auf der Reise zufällig
Der Liebsten Familie fard,
Schwesterchen, Vater und Mutter,
Sie haben mich freudig erkannt.

Sie fragten nach meinem Befinden,
Und sagten selber sogleich:
Ich hätte mich gar nicht verändert,
Nur mein Gesicht sei bleich.

Ich fragte nach Muhmen und Basen,
Nach manchem langweil'gen Geselln.
Und nach dem kleinen Hündchen
mit seinem sanften Belln.

Auch nach der vermählten Geliebten
Fragte ich nebenbei:
Und freundlich gab man zur Antwort,
Daß sie in den Wochen sei.

Und freundlich gratuliert' ich,
Und lispelte liebevoll,
Daß man sie von mir recht herzlich
Viel tausendmal grüßen soll.

Schwesterchen rief dazwischen:
"Das Hündchen, sanft und klein,
Ist groß und toll geworden,
Und ward ertränkt im Rhein."

Die Kleine gleicht der Geliebten,

Besonders wenn sie lacht;
 Sie hat dieselben Augen,
 Die mich so elend gemacht

(Die Heimkehr 1823~1824)

이미 결혼하여 거기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과거 애인인 Amalie의 안부를 묻는 고독한 Heine의 모습과 Therese에 대한 연정(戀情)이 여기에 재현되고 있다.

「Die Heimkehr」(귀향)의 시군(詩群)을 보면 객관적으로 묘사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사실화하려는 경향이 보이고 있으며 또 여기에서는 산문적인 필적으로 자연스럽게도 적극 사실화 시키려는 표현 방법으로 교체하려 하며 형식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라고 보겠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시군들은 일관성이 없으며 통일적인 인상은 거이 찾아 볼 수가 없으나 변호로서 질서있게 배열되어 있는 점이 여기에서 특히 주목될 만 하다.

「Gunge Leiden」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의 괴로움을 꿈의 나라에서 부른다는 묘사 방법을 다양하며 현실의 세상으로 씩씩하게 옮겨 놓려는 의도와 함께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는 점은 매우 진보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과 사물 자체의 관념의 관계를 시정속에서 파헤쳐 가는 기술은 여기에서 매우 능숙하게 실현되고 있는게 보인다.

이편의 시군들은 많은 작곡가들에 의하여 작곡된 유명한 시가 많다.

「Heimker」라는 뜻은 Amalie에 대한 사모는 Therese에 대한 사랑의 고향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본다.

「Heimkehr」의 서시(序詩)의 구절을 보면 여기에서도 역시 Amalie에 대한 시인 Heine의 심정을 부르고는 있으나 Amalie의 사모는 과거의 꿈으로 환상하고 있을뿐 아무런 실현성도 희망도 없는 노래로 바뀌지고 있는것을 다음의 제1페이지를 장식하는 구절을 인용하여 본다.

(1)

In mein gar zu dunkles Leben
 Strahlte einst ein süßes Bild ;
 Nun das süße Bild erblichen
 Bin ich gänzlich nachtumhüllt.

Wenn die Kinder sind im Dunkeln,
 Wird beklommen ihr Gemüt,

Und um ihre Angst zu bannen,
Singen sie ein lautes Lied.

Ich, ein tolles Kind, ich singe
JeBo in der Dunkelheit;
Klingt das Lied auch nicht ergöblich,
Hat's mich doch von Angst befreit.

여기서도 역시 시인은 Amalie를 잊어버린 적은 없다. 너무나 유명한 「Lorelei」를 제외하고는 「연애의 고향」으로 돌아간 시인의 심정을 부르고 있으며 비교적 충실하고 평온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점의 「Hemikehr」의 전시를 통하여 엿 볼 수가 있다.

1824년 1월 Göttingen대학에 재입학한 Heine는 모범학생으로서 조용한 나날을 보내며, 「귀경」을 부르며 16세의 Therese와의 연애의 교류는 마치 고요한 바다와도 같은 소재(素材)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 「Junge Leiden」과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Junge Leiden」에서는 낭만적인 작품이 많고 공상적인 것이 많이 쓰여져 있으나 「Die Heimkehr」에서는 그 공상적인 것도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밤과 죽음을 동경으로 삼는 명상적이고 비합리적(非合理的)인 초기 작품에 비하여 씩씩한 생의 기쁨과 즐기는 사랑으로 「Die Heimkehr」의 전체가 유도적이며 장식적인 연사는 없고 객관적이고 비유없는 산문적인 문장의 구조로 최고의 시를 써 놓는데 성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리하여 「Buch der Lieder」를 살펴본 결과 세계적인 대시인으로 그 명성을 높인 것도 결국은 Amalie에 대한 슬픔의 사랑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Junge Leiden」(1817~1821) Lyrisches 「Intermezzo」(1822~1823)
「Die Heimkehr」(1823~1824) 「Aus der Harzreise」(1824)

「Die Nordsee」(1825~1826)들의 시편은 Amalie의 공적이라고 공인(公認)되고 있다. 그러면 Heine의 서정시의 태반을 찾아하는 주인공인 Amalie의 인상을 그의 시편 「Sorette」에서 살펴봅시다.

(5)

In stiller, wehmutweicher Abendstunde,
Umklingen mich die längst verschollnen Lieder,
Und Tränen fließen von der Wange nieder,
Und Blut entquillt der alten Herzenswunde.

Und wie in eines Zauberspiegels Grunde,
Seh' ich das Wildnis meiner Liebsten wieder:

Sie sitzt am Arbeitstisch im roten Mieder,
Und Stille herrscht in ihrer sel'gen Runde.

Da Pläblich springt sie auf vom Stuhl, und schneidet
Von ihrem Haupt die schönste aller Locken,
Und gibt sie mir-vor Treud, bin ich erschrocken.

Mephisto hat die Freude mir verleidet,
Er spann ein festes Seil von jenen Haaren,
Und schleift mich dran herum seit vielen Jahren.

III Heine와 독일 낭만주의

Heine의 낭만주의 사상은 1819년 Bonn대학 시절로 시작 된다. 당시 Bonn대학의 교수였고, 당대 독일문학계의 거목이며 전기 낭만파의 지도적 인물인 August Wilhelm Schlegel (1767~1845)의 문학강의를 청강하며 흥미를 느꼈다는데서 큰 영향을 얻어왔다고 볼 수가 있다.

Heine는 그의 작품인 「Die romantische Schule」(1833)에서 Schlegel의 영향과 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Wie angenehm verwundert war ich daher anno 1819, als ich, ein gang junger Mensch, die Universität Bonn besuchte, und dort die Ehre hatte, den Herrn Dichter August Wilhelm Schlegel, das poetische Genie, von Angesicht zu Angesicht zu sehen.

Es war, mit Ausnahme des Napoleon, der erste große Mann, den ich damals gesehen, und ich werde nie diesen erhabenen Anblick vergessen.

Noch heute fühle ich den heiligen Schauer, der durch meine Seele zog, wenn ich vor seinem Katheder stand und ihn sprechen hörte. und ich machte auf Herrn Schlegel damals drei Oden, wovon jede anfang mit den Worten: O du, der du, u. s. w. Aber nur in der Poesie hätte ich es gewagt, einen so vornehmen Mann zu dußen.

(Heine, Werke X. Die romantische Schule P. 161)

Heine의 초기작품인 「Junge Leiden」은 Schlegel의 형식의 감화(感化)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의 낭만적인 면이 능후한 작품은 국히 초기작품에 불과 하였고, 그 정치이념은 민족주의에 향해서 점차적으로 변질해 가는 계급적 지배층의 반동적 이념에서 나타나는 후기 낭만주의(Spätromantik) 사상은 보수적이고 퇴보적인 전제정치(專制政治) 이념의 대두(台頭)로서 자유와 진보를 갈망하는 「독일청년파」로서는 이러한 반혁명운동에 대한 반항하는 독일청년작가

들을 연결시키고 이 운동에 참여하였든 것이다.

이 운동의 최대의 작가는 물론 Heine이며 1830년대로 부터 40년대에 걸친 정치적인 문학운동의 단체의 하나이다.

Heine 자신은 선천적인 낭만적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이 운동의 지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예술 시대는 벌써 지나고, 만인을 위한 문학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선언하며 독일 낭만주의를 떠난 것인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천성의 낭만적인 성품의 소유자인 만큼 시종 혁명적인 낭만주의자로서 항상 제자리에 머문 것이다. 「청년 독일파」라는 것은 독일 봉건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탄압하며 공공연히 반동정책을 썼으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방향은 세계적으로 크게 전진하며 독일의 자유주의 자들도 이 운동에 동정하여 원조하기 시작한다.

이리하여 전 세계는 한결같이 흘러가는 데 문학만이 공상적인 꿈의 나라만을 즐길 수는 없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1830년대에 독일에서도 역시 낭만주의에 대체하는 리아리즘(Realism) 시대가 시작한 것이며 이 운동의 시초가 바로 「청년 독일파」라고 부르고 있다.

시인 Heine는 이러한 독일 낭만주의의 암흑면을 폭로하는 현대 독일문학평론「Die romantische Schule」에서 다음과 같이 공격하며 「독일의 낭만파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라고 반문하며 계속 설명한다.

Sie(Die romantische Schule in Deutschland) war nichts anderes als die Wiederverweckung der Poesie des Mittelalters, wie sie sich in dessen Liedern, Bild=und Bauwerken, in Kunst und Leben, manifestiert hatte.

Diese Poesie aber war aus dem Christentume hervorgegangen, sie war eine Passionsblume, die dem Blute Christi entsprossen.

Ich weiss nicht, ob die melancholische Blume, die wir in Deutschland Passionsblume benamsen, auch in Frankreich diese Beneunung führt, und ob ihr von der Volkssage ebenfalls jener mystische Ursprung zugeschrieben wird.

(Die romantische Schule. Erstes Buch. P. 117)

Heine가 위에서 논술 하는 바와 같이 독일 낭만주의를 중세의 문예부활(文藝復活)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는 이러한 독일의 낭만성의 모순을 공격하는 마당에서 또 다음과 같이 중세 카톨릭 부흥문화를 그의 「낭만파」에서 비난하고 있다.

Die Menschen haben jetzt das Wesen dieser Religion erkannt, sie lassen sich nicht mehr mit Anweisungen auf den Himmel abspeisen, sie wissen, daß auch die Materie ihr Gutes hat und nicht gang des Teufels ist, uud sie vindizieren jetzt die Genüsse der Erde, dieses schönen Gottesgartens, unseres unveräußerlichen Erbteils. Eben weil wir alle Konsequenzen jenes absoluten Spiritualismus jeßt so gang

begreifen, dürfen wir auch glauben, daß die christkatholische Weltansicht ihre Endschaft erreicht.

(Deutschland, Die romantische Schule, P. 118)

대지를 보유하는 인간의 요구를 주관적인 예술감정(藝術感情)에서 생겨나는 현실 인간으로서 는 도저히 천국을 실현화 한다는 것은 의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초기의 독일 낭만파의 의의는 독일의 어지러워진 사회를 계몽하며 국민의 사기를 북돋우 며 미래의 꿈의 나라로 안식처를 희망하는 선봉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아울러 독일 독립 운동을 깨우치며 애국정신을 양양 시켰다는 독일 낭만파의 문학의 환영은 정당하다.

이것이 바로 독일의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문학운동인 것이며 이러한 낭만주의 시대에는 개성 으로서의 인간예찬(人間禮讚)은 상실되고 오히려 각 개인의 상호협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낭만주의가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오히려 전체주의 사상의 요소가 끼여 있다는 점이며, 또한 인생에 있어서 사랑의 의의에 대한 그들의 독자적인 견해도 역시 이러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문학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귀족 출신이 많았다는 데서 볼란서의 낭만주의와 그 차이를 볼 수가 있다.

이리하여 중세 독일의 귀족주의 이념을 찬미하며 봉건주의 시대를 열망하는 보수적인 낭만주 의자들의 활동이 큰 영향을 받는다.

19세기는 이미 영웅적 개성을 숭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시민적 사회적 존재에 중점을 둔 것일 만큼 이러한 낭만주의 사상의 모순이 생기게 된 것이 뻔하다.

낭만주의는 당시의 시민 혁명에 대한 반동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시대발전이 조 화되지 못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한 해석이라고 본다.

Heine는 당시의 낭만적인 시가(詩歌)에도 다음과 같은 비판과 해석을 내린다.

Hier stehen wir der romantischen Poesie gleichsam persönlich gegenüber, wir schauen ihr tief hinein in die großen leidenden Augen, und sie umstrickt uns unversehens mit ihrem scholastischen Neßwerk und zieht uns hinab in die wahnwitzige Tiefe der mittelalterlichen Mystik. Endlich sehen wir aber auch Gedichte in jener Zeit, die dem christlichen Spiritualismus nicht unbedingt huldigen, ja worin dieser sogar frondiert, wird, wo der Dichter sich den Ketten der abstrakten chsistischen Tugenden entwindet und wohlgefällig sich hinabtaucht in die Genußwelt der ver herrlichten Sinnlichkeit:

(Heinrich Heine, neuntes Band, Die romantische Schule P. 120)

Heine가 공격하는 독일 낭만파는 증세적이고 보수적인 후기 낭만파(Spätromantik)에 집중된 것이고 전기 낭만파(Frühromantik)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기 낭만파는 신선한 혁명적이고 계몽(啓蒙)적인 새로운 시대의 선봉자의 역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차 시대가 흐름에 따라 퇴보적이고 보수적인 반혁명운동에 불과하였던 후기 낭만파에 쏠리는 것이다. 물론 독일 낭만주의의 선구자인 Schlegel 형제를 중심으로하는 초기낭만시절의 사상과 문학은 Heine로 하여금 열광적이었던 점은 Heine의 저서 "die romantische Schule"에서 Schlegel에 대한 찬미의 뜻을 표현하였으나, 그후 시대의 추이(推移)에 따라 기력이 없어진 보수적 증세적 반동적인 후기 낭만주의에 대한 비평을 Friedrich Schlegel에 향하여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논평하고 있다

Friedrich Schlegel war ein tiefsinniger Mann. Er erkannte alle Herrlichkeiten der Vergangenheit, und er fühlte alle Schmerzen der Gegenwart.

Aber er begriff nicht die Heiligkeit dieser Schmerzen und ihre Notwendigkeit für das künftige Heil der Welt.

Er sah die Sonne untergehen und blickte wehmütig nach der Stelle dieses Unterganges und klagte über das nächtliche Dunkel, das er heranziehen sah ;und merkte nicht, daß schon ein neues Morgenrot an der entgegengesetzten Seite leuchtete. |

(Zweites Buch, P. 152)

미래 세계의 구제에 대한 그 필연성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공격하며 독일 낭만파의 말로를 우려하는 Heine의 낭만파의 일편은 독일 낭만파 전체를 관찰하며 비평한 평론으로서 독일 낭만파 연구의 중요한 문헌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미 규명하여 온 바와 같이 시인 Heine의 여러가지 복잡하고도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들 살펴 보았다.

Heine를 독일 낭만파에 예속시키려고 하는게 문학사가(文學史家)들의 주장이지만 그리 간단히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물론 Heine는 당시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 출발하였고 그의 초기의 작품인 「Junge Leiden」의 내용과 형식은 낭만파에 예속시키려는게 정설로 되어있다.

그러나 항상 꿈의 나라만을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차차 잠이 깨어감에 따라서 현실의 광명이 빛을 내기 시작한게 1823~1824년에 쓰여진 작품 「Die Heimkehr」에서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낭만적인 형식과 내용을 탈피 시켰다고는 볼수가 없다. 오히려 그 낭만적인 요소들 배경으로 하여 현실에서부터 도피하려는 Heine의 심경을 묘사하는데 그의 작품의 특색이 있다고 본다.

또 그의 낭만적인 소질과 현실적인 개념을 통일적인 전체속에 화합하여 가며 문학적인 전체속

에서 예술작품으로 형식화 하려는 천재적인 시인 Heine는 당시의 지배적인 문학조류(文學潮流)에 휩쓸림이 없이 몽상의 세계로 부터 탈피하려고 시도하면서도 결국은 낭만파의 제자리 걸음에 불과하였다는 점은 Heine 자신도 위의 본문에서 밝힌 바 있다.

Trotz meiner enterminatorischen Feldzüge gegen die Romantik, blieb ich doch selbst immer ein Romantiker.....

위와 같이 Heine 자신 낭만주의를 공격하면서도 항상 자기 자신은 낭만주의였다고 그의 문학사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특히 Heine의 시의 수법은 독일 낭만파에 의하여 양성되고 있으면서도 독일 낭만파의 문학적 전통을 솔직히 받아드리지 못하였다는 데 그의 모순성이 있다.

— 참고 문헌 —

- 1) Heinrich Heins Sämtliche Werke in zwölf Bänden, mit einleitung von Adolph Kohut, (Berlin und Liepzig)
- 2) Heinrich Heines gesammelte Werke, 7Bde. Herausgegeben von Ernst Elster, Leipzig 1924.
- 3) Heinrich Heine: Sein Leben und Werke. 舟木重信著 筑磨書房 1965.
- 4) 독일浪漫主義, 芽野蕭蕭著, 齊藤書店 1948.
- 5) 독일近代詩人論, 手塚富雄著, 生活社刊, 昭和24年
- 6) 하이네浪漫派, 山下肇, 夏目書店, 昭和21年.
- 7) Heinrich Heine. 井上正藏著, 岩波新書, 1953.
- 8) 독일文學 감상, 小牧健夫著, 小山書店, 1936.
- 9) Heine-Biographie: Franz Mehring Berlin 1911.